

# 광주·전남 아기 울음소리 늘었다…출생아 수 가파른 증가

〈지난해 1~11월〉

광주 출산 증가율 전국 4번째

전남, 8015명 전년 동기 5.4% ↑

전국 출생아 23만4천명, 6.2% ↑

지난해 1~11월 광주와 전남에서 1만 4000여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광주·전남 모두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광주는 전국에서 4번째로 출산 증가율이 높았다.

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광주 출생아 수는 595명으로 전년 동월(491명) 대비 21.2% 증가했다. 이는 동월 기준 2021년(661명) 이후 최고 수준으로, 출생아 수는 2023년 449명, 2024년 491명, 2025년 595명 등 코로나 엔데믹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11월 광주 누적 출생아 수는 6017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5587명)보다 7.7% 증가한 수준으로, 서울(8.7%)과 인천(8.4%), 충북(8.3%)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남지역의 지난해 1~11월 누적 출생아 수는 8015명으로 전년(7608명)보다 5.4% 늘었다. 전국 평균 상승률(6.2%)에 미치지 못했지만, 전남 출생아 수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 710명으로 전년 동월에 견줘 627명(3.1%) 늘었다. 지난 2019년(2만 3727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혼인·출산이 급감하면서 전국 출생아 수도 1만명 대로 추락했지만, 엔데믹 직후 연인 또는 신혼부부 등이 미뤘던 혼인·출산을 계획하면서 2024년부터 상승 흐름을 탄 것으로 분석된다.

월별로도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1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혼인 건 수 증가, 30대 여성 인구 증가, 출산 관련 긍정적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 ■ 시도별 출생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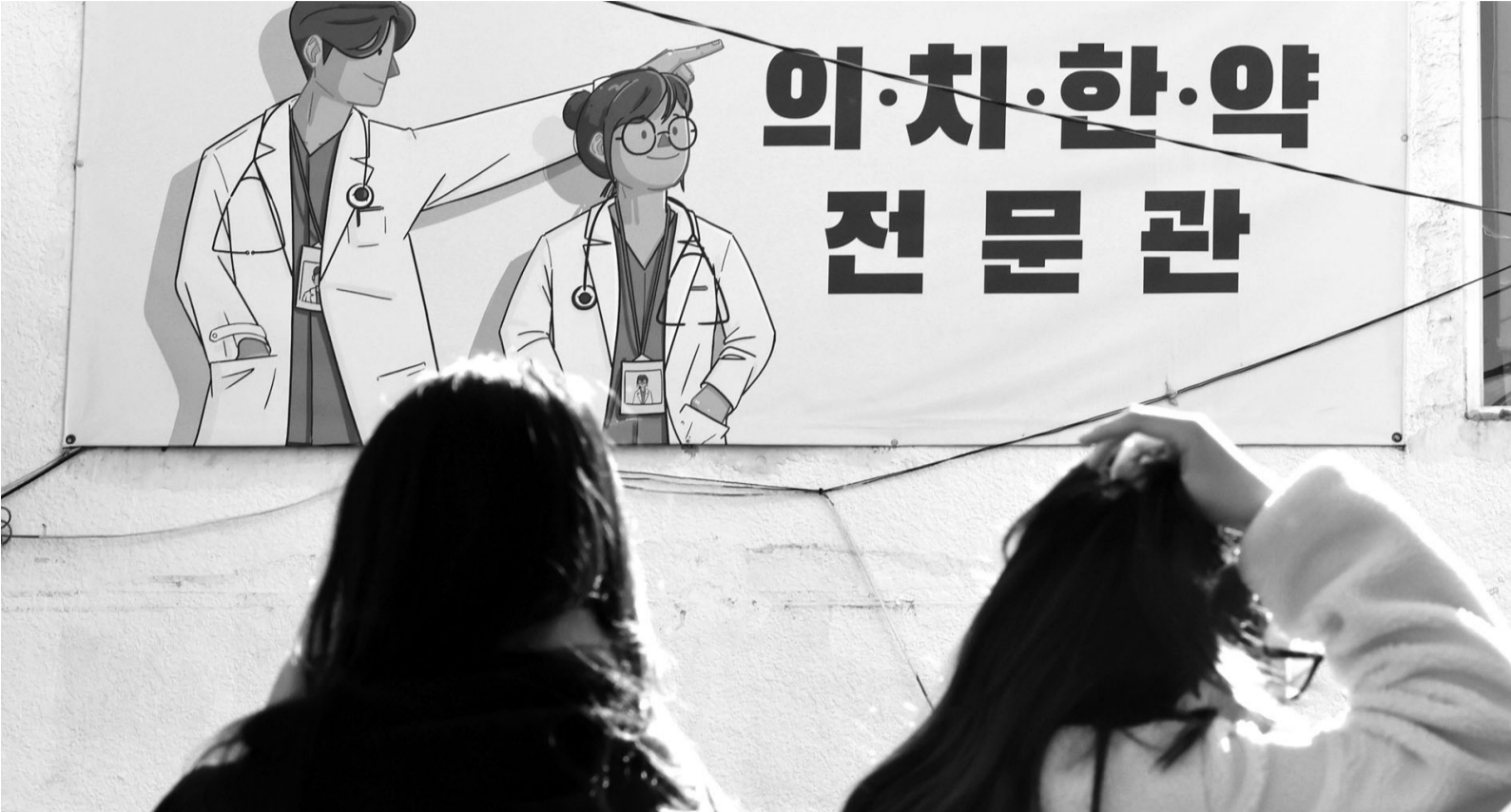
(1~11월, 단위:명, 인구 1천명 당 명, %)

	2024년	2025년	
	누계	누계	전년누계비
전국	220,061	233,708	6.2
서울	28,502	41,867	8.7
부산	12,098	12,849	6.2
대구	9,277	9,908	6.8
인천	14,055	15,235	8.4
광주	5,587	6,017	7.7
대전	6,706	6,989	4.2
울산	4,871	5,127	5.2
세종	2,699	2,712	0.5
경기	65,690	70,130	6.8
강원	6,055	6,101	0.8
충북	6,964	7,544	8.3
충남	9,084	9,467	4.2
전북	6,248	6,437	3.0
전남	7,608	8,015	5.4
경북	9,554	9,602	0.5
경남	12,139	12,695	4.6
제주	2,924	3,017	3.2

지난해 전국 1~11월 누적 출생아 수도 23만 370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3647명(6.2%) 증가했다. 1~11월 누적 출생아 수는 2021년(24만 3383명) 이후 4년만에, 전년 대비 증가율로도 지난 2007년(10.4%)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다.

연간 출생아 수도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1명에 대한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소폭 상승했고,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 수도 증가했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11월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전년도 0.02명 늘었고, 전망치는 0.80명 회복을 나타냈다.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도 1만 9079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498건(2.7%) 증가하며, 2024년 4월(24.6%) 급증한 이후 20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제' 도입

2027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지역의사제로 의대에 입학하면 정부로부터 등록금,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받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료 복무를 해야 한다.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의대 입시 학원 모습. /연합뉴스

##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발의 연기…민주당 당론으로 법안 일괄 검토

시도지사·의원 5차 간담회도 취소

내달 2일 대전·충남 동시 발의 유력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초석이 될 '전남광주특별법'을 위한 특별법 발의가 당초 계획했던 28일을 넘겨 순연된 가운데, 29일로 예정됐던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5차 간담회'도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통합 법안을 당 입법지원추진단에 맡겨 통합적으로 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지역별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당론 차원에서 일관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국회의원은

들은 당초 이날 특별법안을 확정해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충청권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물리적인 시간을 더 갖기로 합의했다.

발의 시점은 29일부터 내달 2일 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중 대전·충남 특별법 발의가 예정된 내달 2일이 유력하다. 민주당 입법지원추진단에서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이 같은 날 발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위원회 양부남 공동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445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제5차 특별법 간담회'를 긴급 소집했지만 제5차 특별법 간담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현재 법안의 핵심 쟁점은 통합 이후 재정 배분 방식과 의회 구성 문제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 광주시는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2를 확보해 통합특별시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남도는 비율을 1000분의 13으로 상향하고 이 중 일부를 기초지자체에 직접 배분해 낙후 지역의 재정을 보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방의원 정수 문제 역시 광주시의회의 확대 요구와 전남도의회의 현행 유지 입장이 다르다.

당 입법지원추진단은 이러한 사·도의 예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전·충남 통합 법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종 법안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 입법지원추진단에서 법리적 검토와 쟁점 조율을 맡게 된 만큼, 보다 객관적인 중재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 당정, 주거용 불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과 추진

165㎡ 미만 단독주택 등 대상

주거용 불법(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5㎡(약 50평)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한 일괄 양성과 방침을 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복 의원 설명에 따르면 당정은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330㎡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도 조례로 양성화 기준을 정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330㎡ 미만까지 양성화를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이 확보된다는 조건 내에서 양성화를 허용기로 했다.

방을 조건 건축물에 대해선 세대·가구 수가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수전(큰 규모의 수리·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제이행금 5회분 납부를 양성화의 조건으로 내걸기로 했다. 또한 건축법 개정을 통해 불법 건축물에 따른 일조권 관련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불법 건축물을 일시 해소하고 신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입법 방안을 민주당과 논의해왔다. /연합뉴스

## 전남도, 조류독감·돼지열병 재난안전 대책본부 통합 운영

전남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발생하면서 통합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월부터 운영 중인 AI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에 ASF 수습 업무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전남에서 첫 ASF 발생이 확인된데 따른 것으로, 가축전염병

유행이 끝날 때까지 기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AI·ASF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단장으로 행정부지사 직무대리가 차장을 맡는다. 도 재난종합지휘실을 비롯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모두 포함됐다.

동물방역과가 상황을 총괄하고 동물위생시험소가 기동방역을 담당한다. 소방본부와 경찰, 농협,

수의사회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 체계도 유지한다.

전남지역은 AI와 ASF로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지난해 10월 AI가 검출되면서 이날까지 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데 이어 지난 26일 영광 흥농의 한 돼지농가에서 ASF가 확인됐다.

전남은 504개 농가에서 돼지 117만 493마리를 사육중으로 전국의 11%를 차지할 정도로 농가들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

양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신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MODERN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채권신고공고(1차)

당회사는 2026년 01월 26일 주주서면 결의로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당회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26년 03월 28일까지 그 채권액을 당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시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월 29일

주식회사 씨에스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3층 (쌍촌동)

청산인 이찬택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6년 01월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립니다.

2026년 1월 29일

주식회사 새솔시스템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로 120-1, 에이동 1층

청산인 문형식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